

금년부터 '자율관리어업 공동체'의 질적 성장에 주력

- 우수공동체 지원확대, 미흡공동체는 컨설팅·교육 통해 정상화 유도 -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는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자율관리어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 그동안 양적성장 위주로 추진해 왔던 자율관리어업 사업을 금년부터는 공동체가 질적으로 성장하는데 역점을 두기로 했다.

자율관리어업은 정부 주도의 수산자원관리의 한계를 극복하고, 어업인들의 자율적인 수산자원관리를 유도하기 위하여 2001년에 도입되어 15년째를 맞고 있는 대표적인 수산자원관리 정책이다. 2001년 출범 이후 어촌사회를 변화시키는 모범 사례로 인식되어 공동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노력으로 어장환경의 개선, 수산자원의 회복 및 어가소득 증대 등 다양한 성공 사례를 구현해 왔다.

2001년 출범 당시 63개, 5천여명에 불과했던 공동체와 참여 어업인은 2015년 말 현재 1,129개, 7만여명으로 괄목할 만한 양적성장을 이뤄왔으나, 한편으로는 공동체의 활동이 수산자원의 자율적인 보전관리라는 근본 취지보다는 육성사업비라는 수혜를 받기 위한 활동에 치우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었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공동체 선정 취소 사유를 강화하고, 우수공동체 지정패 수여기준을 마련하는 등 공동체 관리를 강화토록 함으로써 그동안 제기되어 왔던 우려를 불식시키고, 당초의 취지대로 공동체의 역할이 정착될 수 있는 방향으로 「자율관

리어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 2016. 2. 19일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다.

* 주요 개정내용은 4면을 참조

또한, 2016년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 추진 시, 형식적인 요소를 배제하고 실효성 위주의 교육 및 홍보사업을 실시한다는 방침을 정하여 집행기관에 시달하였다.

해양수산부는 그동안 '자율관리어업 공동체'에 대하여 매년 활동실적을 평가하여 등급 및 순위에 따라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비를 지원하고, 자율관리어업 활성화를 위한 공동체 컨설팅, 분쟁조정, 교육·홍보 등 각종 지원 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번 규정의 개정·시행으로 앞으로는 활동실적이 미흡한 공동체가 퇴출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신규 공동체나 참여의지가 강한 공동체에 대하여는 별도의 맞춤형 컨설팅, 분야별 교육프로그램 등을 마련하여 실시하는 등 공동체가 질적으로 더 한층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최완현 어업자원정책관은 "지금은 자율관리어업의 양적기반이 어느 정도 다져진 만큼, 공동체의 질적성장을 위해 각자의 역량을 고려한 맞춤형 관리가 필요한 시점으로 금번 규정 개정·시행이 '자율관리어업 공동체'가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사도별 참여공동체 현황]

구분	계	부산	인천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001	63	1	6	1	2	7	-	4	5	20	7	8	2
2003	122	4	7	3	3	15	-	6	9	28	15	16	6
2005	308	5	13	10	12	21	5	27	25	99	37	33	21
2007	579	15	25	15	23	39	7	49	38	184	69	76	39
2009	758	18	36	16	24	58	12	63	41	236	78	134	42
2011	932 (63,860)	25 (1,990)	43 (3,374)	20 (1,744)	32 (2,073)	82 (5,499)	17 (339)	82 (7,029)	44 (3,137)	271 (19,445)	91 (4,888)	177 (9,165)	48 (5,177)
2012	989 (66,410)	28 (2,104)	50 (3,772)	20 (1,740)	34 (2,137)	82 (5,429)	17 (348)	91 (7,417)	46 (3,188)	289 (20,200)	97 (5,256)	180 (9,153)	55 (5,666)
2013	1,039 (67,687)	31 (2,188)	53 (3,970)	21 (1,775)	36 (2,115)	84 (5,521)	18 (351)	99 (7,927)	50 (3,308)	293 (20,426)	106 (5,513)	193 (9,564)	55 (5,029)
2014	1,086 (69,098)	33 (2,257)	54 (4,107)	22 (1,792)	36 (2,124)	89 (5,526)	19 (380)	107 (8,170)	53 (3,557)	301 (20,719)	112 (5,274)	203 (9,970)	57 (5,222)
2015 (어업인수)	1,129 (70,539)	33 (2,257)	55 (4,282)	22 (1,840)	39 (2,228)	93 (5,666)	20 (377)	115 (8,681)	55 (3,540)	305 (20,645)	113 (5,633)	222 (10,509)	57 (4,881)

[연도별, 유형별 참여 공동체 현황]

	'09	'10	'11	'12	'13	'14	'15
공동체(개소)	758	863	932	989	1,039	1,086	1,129
(전년대비 증가율, %)	(15.0%)	(13.9%)	(8.0%)	(6.0%)	(5.0%)	(5.0%)	(4.0%)
- 마을어업	391	438	465	490	502	518	537
- 양식어업	80	85	89	96	98	98	102
- 어선어업	135	156	175	183	200	207	219
- 복합어업	124	143	153	165	176	189	193
- 내수면어업	28	41	50	55	63	74	78
참여어업인(명)	56,100	60,902	63,860	66,410	67,687	69,098	70,539
(전년대비 증가율, %)	(10.6%)	(8.6%)	(4.8%)	(4.0%)	(2.0%)	(2.0%)	(2.0%)
공동체당 평균 구성원수(명)	74	70.6	68.5	67.1	65.1	63.6	62.5

국민 눈높이로 다가가는 열린 정부, 국민과 함께 하겠습니다.

정부 3.0



더 큰 가치로 돌아옵니다

아직도 어린물고기를 잡아 드시나요?

내일을 위해 어린물고기가 충분히 크고 번식할 수 있는 시간을 주세요.
한번 일을 낚으면 몇 만 마리의 물고기가 태어납니다.
한번만 참으면 어린물고기는 더 큰 가치가 되어 돌아옵니다.

해양수산부 KOREA FISHERIES ASSOCIATION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NATIONAL INSTITUTE OF AQUACULTURE QUALITY MANAGEMENT

2016년에 추진되는 자율관리어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 현장중심 교육 및 컨설팅 등 내실있는 사업에 주력 －

해양수산부는 금년도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 세부추진계획을 확정하여 시행하도록 하였다. 동 계획에는 신규로 참여하는 공동체 및 기존 공동체 중 컨설팅이 필요한 공동체에 대하여 현장중심 지원을 강화하고, 활동이 우수한 공동체에 대하여는 경진대회를 실시하여 상금 및 지정패를 수여함으로써 지속적인 참여의식을 고취하고 홍보자료로 활용하며, 해외연수 등을 통하여 외국의 자원관리 및 우수사례를 직접 견학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등 자율관리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현장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6년에 추진되는 주요 지원사업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신규공동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16년도에 새로이 자율관리어업에 참여하는 공동체에 대하여는 우수공동체 지도자, 컨설턴트 또는 외부 전문가가 공동체를 직접 방문하여 구성원 전체를 대상으로 집합교육을 실시하고, 우수공동체 현장을 방문하여 현장교육도 병행하여 실시함으로써 우수사례를 벤치마킹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교육대상 공동체는 매분기별로 조사하여 다음 분기에 교육을 실시하되, 교육효과를 최대한 높일 수 있도록 가능한 공동체가 희망하는 시기를 최대한 반영하여 실시할 계획이다.

둘째, 기존 공동체에 대하여는 현장중심의 교육을 실시하여 공동체 활성화를 지원한다.

- ① 자율관리어업에 대한 이론교육 및 우수공동체 현장방문을 통하여 공동체 활성화 동기를 부여하고 우수공동체로의 발전을 유도하기 위하여 수협중앙회 주관으로 '자율관리공동체 선진화 교육'을 실시한다.
 - ▷ 각 분야의 전문가를 활용하여 자율관리어업의 이해, 수산자원의 관리, 어업질서의 유지, 어가소득의 증대 및 공동체 운영에 대한 실무 등을 교육하며,
 - ▷ 우수공동체 현장 체험을 통하여 공동체운영 프로그램 실습 및 성공 노하우를 배우도록 지원한다.
- ② 자율관리공동체 선진화교육 이수자를 대상으로 교육 후 변화된 모습과 개선사항을 발굴하고, 자율관리어업 발전을 위한 교육사업의 역할 및 추진방향을 논의하기 위하여 '자율관리어업 교육사업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을 개최한다.
 - ▷ 워크숍에서는 '16년 자율관리어업 정책방향'을 소개하고, 분임토의 및 간담회를 실시하여 '교육을 통해 달성한 공동체의 변화 및 성과'와 '교육사업의 개선방향 및 자율관리어업 발전을 위한 교육사업의 역할' 등에 대한 의견도 수렴한다.
- ③ 성공한 공동체 방문견학을 통하여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함으로써 자율관리 공동체가 활성화되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자율관리어업연합회 주관으로 '성공사례 전수 현장교육'을 실시한다.
 - ▷ 동 교육은 신규, 참여 또는 활동이 부진한 공동체를 우선 대상으로 동해, 서해, 남해 및 제주권의 4개 공동체, 120여명에 대하여 실시할 계획이다.
- ④ 찾아가는 맞춤형 현장교육 실시로 교육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교육효과 제고를 위하여 한국자율관리어업연합회 주관으로 '지역 순회교육'도 실시한다.
 - ▷ 이 교육은 동해, 서해, 남해 및 제주권에서 8개 공동체, 400여명의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구성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 ▷ 성공사례 및 조직정비 이외에 특별히 공동체에서 요구하는 주문형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실질적인 효과 위주의 교육이 되도록 지원하게 된다.

셋째, 공동체에 대한 컨설팅 지원사업으로, 신규공동체 및 활동부진 공동체에 대한 컨설팅과 기존 공동체 중 전문분야 컨설팅으로 구분하여 추진한다.

- ① '15년도에 자율관리어업에 참여한 공동체 및 기존 공동체 중 활동실적이 부진한 공동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컨설팅으로,
 - ▷ 해당 지역을 담당하는 컨설턴트가 매월 1회 이상 방문하여 해당 공동체를 1년 동안 밀착 지도하도록 함으로써 공동체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 ▷ 주요 지도 내용은, 수산자원의 관리 방법, 자율관리어업 관련 정부정책 등 각종 정보의 제공, 공동체 구성원에 대한 의식개혁 교육, 공동체 위원장의 리더십 향상 및 공동체 운영에 관한 지도 및 자율관리어업 활동관련 각종 서류작성 요령 등이 포함된다.
- ② 자율관리어업에 참여하고 있는 기존 공동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컨설팅으로,
 - ▷ 자율관리에 참여한 모든 공동체 중 특정분야 전문가의 자문을 희망하는 공동체에 대하여 해당분야 전문가가 3~5회의 범위 내에서 직접 공동체를 방문하여 필요한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컨설팅을 실시하며,
 - ▷ 수산자원의 조성 및 관리 분야, 체험시설 등 관광연계 분야, 상품의 개발 및 가공 분야, 공동체 경영 분야, 제품의 판매 및 유통 분야 등 공동체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최대한 반영하여 컨설팅을 실시하게 된다.

넷째, 우수공동체 발굴을 위한 경진대회를 실시한다.

자율관리어업에 참여하고 있는 공동체를 대상으로 경진대회를 실시하여 우수공동체를 발굴하고, 입상공동체에는 상금 및 지정패를 수여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참여의식을 높이는 한편 우수사례를 홍보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다.

- 참여대상은 자율관리어업에 참여한 공동체 중 전년도 평가점수가 600점 이상인 공동체(최근 3년 이내 자율관리평가위원회에서 최우수, 우수, 장려로 선정되었거나 성공사례 경진대회 본선에서 입상한 공동체는 제외)
- 추진방법 : 3개 권역(호남권, 영남권 및 중부권)으로 구분하여 개최

구분	호남권	영남권	중부권
일정	5.12	6.23	9.22
해당지역	전남, 전북, 제주	부산, 울산, 경남, 경북	인천, 경기, 충남, 충북, 강원
장소	목포	통영	대전

- ▷ 각 권역별로 참가를 희망하는 공동체는 지자체(수산사무소)를 통하여 신청
- ▷ 권역별 최대 6개 공동체가 발표하도록 하고, 참가공동체가 6개 이상인 경우는 평가점수 고득점순으로 발표 후보를 선정
- ▷ 입상 공동체(최우수, 우수, 장려)에는 상금 및 지정패를 수여하되, 지정패는 자율관리어업 전국대회 시 별도로 수여

다섯째, 외국의 우수사례를 현지 견학을 통하여 배울 수 있도록 공동체 구성원에 대하여 해외연수를 실시한다.

자율관리어업에 참여하고 있는 공동체 지도자 및 구성원들에게 외국의 자원관리 및 우수사례 등을 직접 견학하게 함으로써 자율관리어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해외연수를 추진하며, 그동안 우수공동체만을 대상으로 실시해왔으나, 금년에는 특별히 신규로 참여한 공동체에도 연수기회를 제공하고자 지난해에 자율관리어업에 참여한 공동체만을 대상으로 하는 연수도 계획하고 있다.

- 연수횟수 : 3회(우수공동체 2회, 신규공동체 1회)
- 연수시기 : (1차) 6.13~17일, (2차) 8.14~20일, (3차) 10.31~11.4일
- 연수대상자는 해양수산부에서 지자체를 통하여 추천을 받아 선정하되, 최근 3년 이내에 해양수산부에서 지원하는 연수실적이 있는 공동체 및 최근 5년 이내에 연수실적이 있는 자는 연수대상자 추천대상에서 제외된다.

2016년에 추진되는 자율관리어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여섯째, 내수면어업의 자율관리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다.

자율관리어업에 참여하고 있는 내수면어업 공동체 및 미참여 내수면어업인을 대상으로 자율관리어업의 필요성 및 추진배경, 자율관리어업 추진에 대한 정책방향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해면어업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위축되어 있는 내수면의 자율관리어업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 내수면 자율관리어업 참여공동체 및 미참여 어업인 대상
- 집합식 교육을 통한 자율관리어업의 필요성 및 정책방향 등의 소개
- 분임토의를 통한 내수면에서의 자율관리어업 활성화 방안 토론 등

일곱째, 자율관리어업 소식지 및 전문지 등을 통하여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한다.

자율관리공동체 및 미참여 어촌계 등에 자율관리어업 관련정책을 소개하고 우수공동체 사례 등을 홍보함으로써 자율관리어업의 지속적인 참여의식 확산은 물론 공동체 내실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매월 2,000부 이상의 소식지를 발간, 배포할 계획이다.

여덟째, 어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분쟁해소를 위한 민간차원의 조정활동을 강화한다.

한국수산회에 설치되어 있는 민간차원의 조정기구인 '자율조정협의회'를 연중 운영, 어업 현장에서 어업 인건 또는 지역 간업종 간에 발생하는 갈등과 분쟁을 당사자 간 협의와 토론을 통하여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다년간의 경험이 있는 전문위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조정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아홉째, 자율관리어업의 성공적인 정착과 지속적인 참여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자율관리어업 전국대회'를 개최한다.

(사)한국자율관리어업연합회 주관으로, 자율관리어업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공동체 및 유관 기관단체 관계자가 참여하는 '2016년 자율관리어업 전국대회'를 강원도 동해시에서 개최한다.

자율관리어업 전국대회에서는,

- 유공자 시상, 성공사례 상영, 퍼포먼스 등의 기념식 및 우수공동체 성공 사례를 발표하고,
- 수산 관련 정책의 홍보 및 우수공동체 활동상황도 전시되며,
-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지도자 간 대화의 시간을 마련하는 등 모든 자율관리어업인이 직접 참여하는 축제의 장도 펼쳐진다.

마지막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자율관리 공동체 평가를 위한 평가시스템을 운영한다.

해양수산부에서는 2016년 자율관리 공동체에 대한 평가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평가시스템을 운영하며, 평가는 지자체(수산사무소), 한국자율관리어업연합회, 수협 및 내수면평가협의체가 2016년 2월까지 실시하는 예비평가와 시도지역협의회(지자체)가 5월까지 실시하는 본평가 및 자율관리어업평가위원회(해양수산부)가 6~7월 중에 실시하는 본평가로 구분하여 추진된다.

또한, 평가담당자의 지역별·개인별 편차를 줄이고, 평가의 공정성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해서는 평가담당자 간 표준화가 필요함에 따라 4월 중에 평가담당자를 대상으로 표준화 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며,

상반기 중에는 지자체의 사업 담당자를 대상으로 자율관리어업 추진과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고, 육성사업비 등의 집행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워크숍을 개최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에는 공동체 등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자율관리어업과 관련된 통계자료를 원활히 생산하며, 평가자료가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전자평가시스템을 개선한 바 있다.

2016년 자율관리공동체 평가는 이렇게 진행된다

해양수산부에서는 매년 자율관리어업에 참여하고 있는 공동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공동체별 등급을 결정하고, 활동실적이 우수한 공동체에 대하여는 육성사업비를 지원하는 등 자율관리어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2016년 자율관리공동체에 대한

평가도 정해진 절차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 자율관리어업평가위원회에서는 본 평가를 통하여 최종적으로 공동체별 등급을 결정하게 되며, 동 위원회에서 결정한 등급에 따라 육성사업비를 지원하게 될 공동체의 범위도 결정된다.

- 평가대상 : 2015년 11월 말까지 자율관리 공동체로 선정된 1,119개 공동체
- 평가내용 : 2015년 1~12월 중 공동체에서 추진한 활동실적
- 평가기관
 - 예비평가 : 지자체(수산사무소)의 전자평가(70%), 한국자율관리어업연합회(15%), 수협(15%, 해면공동체) 및 내수면평가협의체(15%, 내수면공동체)
 - 본평가 : 시도지역협의회(지자체) 및 자율관리어업 평가위원회(해양수산부)
- 평가절차
 - 예비평가 : 지자체(수산사무소), 연합회, 수협, 내수면평가협의체 ⇒ 2016년 2월
 - 본평가 : 시도 지역협의회(지자체) ⇒ 2016년 5월
 - 본평가(최종평가) : 자율관리어업평가위원회(해양수산부) ⇒ 2016년 6~7월

자율조정협의회 상반기 총괄협의회 개최 - 2016년 조정해야 할 과제 선정 -

한국수산회에 설치된 자율조정협의회(위원장 박재영)는 오는 3월 25일 KTX 서울역 회의실에서 2016년에 조정해야 할 과제를 선정하기 위한 총괄협의회를 개최한다. 자율조정협의회는 매년 자율관리공동체 등 어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갈등이나 분쟁사항을 민간차원에서 대화와 협의를 통하여 해결하도록 조정하는 업무를 수행하여 왔다.

동 협의회는 2016년 조정과제 발굴을 위하여 4개 분과로 구성된 분쟁조정위원들이 금년 2~3월 중 동해·서해·남해권 및 전남권으로 나누어 자율관리공동체는 물론 해당 지자체 및 관련 단체 등 일선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최일선에서 일어나는 민간차원의 조정이 필요한 분쟁사항을 발굴한 바 있다.

이렇게 발굴된 분쟁사항은 이번에

개최되는 총괄협의회에 상정되어 금년도에 조정해야 할 과제로 채택할 지 여부를 심도 있게 논의하게 되며, 채택되는 과제에 대하여는 별도로 구성되는 분과위원회에서 연중 현지를 직접 방문하여 조정업무를 수행하게 되며, 조정과정 중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지자체와도 긴밀하게 협력하는 등의 방법으로 금년 내에 분쟁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아울러, 민간차원에서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분쟁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아래의 연락처로 요청하면 자율조정협의회 분과위원이 현지를 방문하여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게 된다.

▷ 연락처 : 한국수산회 자율관리팀
전화 02-589-4604, 4609
팩스 02-589-1500

우리몸에
우리 수산물

인터넷 수산시장 '피쉬세일'이 있습니다.

www.fishsale.co.kr

「자율관리어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주요 개정내용

해양수산부는 질적 성장에 역점을 두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일환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율관리어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2016년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 지방해양수산청의 지도·감독업무 수행 근거 마련(제7조 제4호)

- 2015년 1월 6일자로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으로 지방해양수산청 담당사무에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지도에 관한 사항'이 추가되었으나 이에 따른 후속조치가 없어 관할 지자체와 지방해양수산청 간에 업무 추진상의 혼란이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지방해양수산청에서 자율관리어업 공동체에 대한 지도·감독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제7조(자율관리어업 추진체계)

4.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자율관리어업 공동체의 지도·감독, 육성사업 추진현황 점검 및 사후관리 등을 수행한다.

□ 자율관리어업 공동체의 구성단위를 명확히 함(제3조 제1항)

- 지역을 중심으로 공동체를 구성할 경우 지구별 수협, 어촌계, 마을 또는 이들의 연합체로 하도록 한 현행규정을, 지구별 수협, 어촌계, 내수면어업계, 행정리 또는 이들의 연합체로 한다는 내용으로 개정

제3조(구성단위)

① 지역을 중심으로 구성할 경우 지구별 수협, 어촌계, 내수면어업계, 행정리(行政理) 또는 이들의 연합체로 한다.

□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구성원이 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명확히 함(제4조 제1호)

- '어촌계원 또는 수산업법 제8조에 의거 살포식어업을 위한 패류양식어업 면허를 받은 자'로 되어 있는 현행 마을어업 공동체 구성원의 범위를, '어촌계원 또는 자율관리어업 구성지역 내에 수산업법 제8조제1항 제2호·제3호·제4호·제5호에 따른 양식어업 중 바닥식양식어업 면허를 받은 자'로 명확히 하여 해석상 논란을 해소

• 이에 따라, 마을어업 유형의 참여어업인은 마을어업권을 가진 어촌계원과 굴, 전복, 해삼 등 바닥을 이용한 살포식 면허어업자도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음

제4조(구성원이 될 수 있는 자의 범위)

1. 마을어업 : 어촌계원 또는 자율관리어업 구성지역 내에 수산업법 제8조제1항 제2호·제3호·제4호·제5호에 따른 양식어업 중 바닥식양식어업 면허를 받은 자

□ 공동체 선정취소 사유 강화(제7조)

- 현행 규정에도 수산관계법령을 위반하거나, 활동실적 평가점수가 미흡한 공동체 등에 대하여 선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은 있으나,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공동체가 발생하여도 실제로 선정을 취소하는 사례가 없어 공동체 관리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효율적인 공동체 관리가 가능하도록 기준강화 및 규정을 신설함

▷ '최근 2년간 수산관계법령 위반건수가 3건 이상 또는 전체 구성원수의 20%를 초과하는 공동체', '공동체로 선정된 이후 최근 2년간 평가점수가 연속해서 500점 미만으로 활동실적이 미흡한 공동체는 선정을 취소하도록 하고,

▷ '육성사업비를 부당수령하거나 부당하게 집행하게 집행하여 2회 이상 처벌을 받은 경우' 및 '공동체로 선정된 이후 어업면허·허가 등이 소멸되어 공동체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공동체의 불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도록 함

제17조(공동체 선정취소)

① 시·도 지역협의회는 제15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체는 신규공동체 선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기존 참여공동체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해당되는 공동체는 공동체의 선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최근 2년간 해당 참여유형 공동체 구성원의 수산관계법령 위반 건수가 3건 이상 또는 전체 구성원수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2. 참여공동체로 선정된 이후 최근 2년간 평가점수(관계기관 예비평가 합산점수)가 1,000점 만점 기준으로 계속하여 500점 미만인 경우
3. 공동체 또는 해당 공동체 참여 어업인이 해양수산사업과 관련한 사업비를 부당수령하거나 부당하게 집행하여 2회 이상 처벌을 받은 경우
4. 공동체로 선정되었다가 어업면허·허가 등이 소멸되어 공동체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 우수공동체 지정패 수여기준 마련(제20조 제3항)

- 활동실적이 우수한 공동체에 대하여 우수공동체 지정패를 수여하도록 하고 있으나 지정패의 수여기준, 관리지침 등이 없어 지정패 수령 이후 활동실적이 미흡하거나 자율관리에 반하는 행위를 하여도 지정패를 회수하거나 사업비 지원을 중단하는 등 별도의 사후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이를 보완

▷ 우수공동체 지정패의 수여 및 관리기준을 설정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 지정패 수여기준, 절차 및 관리기준 등 세부사항은 별도 지침을 마련하여 공동체의 육성 및 활성화를 제고하도록 하였음

제20조(우수공동체 인센티브 부여)

③ 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동체 지정패의 수여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자율관리어업 전국대회 개최시기 변경(제21조)

- 자율관리어업의 성공적인 정착과 전국적 확산을 유도하기 위하여 '매년' 개최하도록 되어 있는 「자율관리어업 전국대회」를 '2년마다' 개최하는 것으로 변경함

□ 시도 지역협의회 구성요건 현실화(제8조)

- 현재 각 시도 단위로 설치되어 있는 「시도 지역협의회」 구성 시, 수산사무소가 없는 내륙지역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군구의 내수면어업 관련 과장을 시도 지역협의회 구성인원으로 추가하도록 함

□ 육성사업비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내용 조정(제25조)

- 현행 규정상 어선어업 공동체에 대하여는 기본적인 지원사업 이외에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 정해져 있으나, 그 내용이 다른 유형의 공동체에서도 활용이 가능한 사업들로 구성되어 있어 사업추진 범위 해석에 혼란이 야기되었음

-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존 어선어업 공동체에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일반사업의 내용에 포함하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조문내용을 일부 수정하였음

「자율관리어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주요 개정내용

제25조(사업내용)

- ① 육성사업비로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은 공동체의 공동이익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해양수산부 등 중앙정부와 지자체에 의하여 수행되는 사업과 중복되어서는 아니되나, 사업집행 주체가 판단하여 동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육성사업비의 1/2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다.
1. 공동작업장, 물양장 등 어획물 양육 편의시설, 소형선박인양기 등 재해대책시설, 어선접안용 잔교 및 부잔교 시설, 어선 안전설비·장비 및 친환경어구 구입, 어업용창고, 가공처리시설, 냉동냉장시설, 사료저장시설, 간이 중간육성수조, 임시축양수조, 산지 간이위판장, 활선어 등 수산물 신선·안전 운반시설, 어획물 운반차량, 어장진입갯벌로, 공동판매장 등 생산관리시설 및 사업
 2. 쓰레기적치장, 쓰레기소각로, 폐유수거탱크, 정화처리시설, 패각분쇄처리장, 노후어장저질개선, 어장정화, 해적생물 퇴치장비(어구 포함), 어장관리선 등 어장환경개선시설 및 사업
 3. 투석, 인공어초투하, 수산종묘방류, 먹이공급용 해조장·해중림조성 등 자원조성시설 및 사업
 4. 체험어장 및 낚시터조성, 공동체 특산물 개발연구, 홍보(동영상 포함), 공동체 회관·컴퓨터 구입 등 교육시설, 복지시설(마을회관, 다목적회관, 마을도서관, 건강관리시설, 공동생활홀 등), 기타 자원보호와 공동체 소득증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설 및 사업

5. 공동체 평가위원회에서 선진공동체 특별사업비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사업
- ② 제1항 사업에 부수되는 소모품만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여서는 아니된다.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 계약에 관한 근거법령을 명확히 함(제27조)

-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 추진 시, 보조사업자와의 계약에 관한 근거법령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여 근거법령을 명확히 함

육성사업비로 지원된 시설물 또는 재산 등의 사후관리 기간을 현실에 맞게 조정(제31조)

- 육성사업비로 지원된 시설물 또는 재산 중 관리 기간이 5년으로 되어 있는 “자원관리선”을 “공작물”로 하고, 관리 기간이 10년으로 되어 있는 “건축물과 구축물”을 “부동산과 그 종물, 선박, 부표, 부잔교 및 부선거와 그 종물”로 하여 관리해야 할 재산의 목록을 명확히 함

제31조(사후관리)

- ② 육성사업비로 지원된 소득원 및 시설물 또는 재산의 사후관리 기간은 당해 보조금 교부 목적 달성까지로 하되, 사업을 시행한 다음 연도부터 다음 기간까지 관리되도록 조치해야 한다.
1. 차량, 장비, 기구, 공작물 : 5년
 2. 부동산과 그 종물(從物), 선박, 부표(浮漂), 부잔교(浮棧橋) 및 부선거(浮船渠)와 그 종물 : 10년

지역담당 컨설턴트, 2016년에도 이렇게 활동한다



2016년 각 시도별로 자율관리 공동체에 대한 컨설팅 업무를 수행할 지역담당 컨설턴트 12명이 지난 2월에 위촉되어, 3월 4일 KTX 대전역 회의실에서 해양수산부 장모인 수산자원정책과장 주재로 컨설턴트 회의를 개최하고 금년도에 컨설팅을 실시할 공동체 선정 및 컨설팅 방향에 대하여 집중 논의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금까지의 컨설팅이 자율관리어업과 관련된 이론적인 내용이나 평가에 대비한 지도에 치중하여 왔다는 데 공감하고, 앞으로는 공동체에 참여한 구성원을 대상으로 왜 자율관리어업에 참여해야 하며, 자율관리를 통하여 수산자원은 어떻게 보존하고 관리해야 하는지 등 공동체 구성원들이 현실적으로 느낄 수 있는 지도

및 교육이 이루어짐과 더불어 정부에서 추진하는 자율관리어업 등에 관한 정책도 시의적절하게 공동체에 전달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새로이 자율관리어업에 참여한 공동체 및 활동이 부진한 공동체가 컨설팅을 통하여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지도하기로 다짐하였다.

지역별	담당 컨설턴트	지역별	담당 컨설턴트
부산·울산	오용대 	충남·충북	임희순 
인천·경기	천명길 	전북	홍종민 
강원	주창석 	전남동부 (여수, 고흥)	임여호 

지역별	담당 컨설턴트	지역별	담당 컨설턴트
전남중부 (장흥, 강진, 해남, 완도)	김동철 	경남서부 (마산, 남해, 사천, 고성)	하태인 
전남서부 (영광, 목포, 진도)	서광일 	경북	손종철 
경남동부 (통영, 거제)	김육환 	제주	최영진 

수산업의 미래산업화, 정책현장에서 답을 찾다

- 김영석 해수부 장관, 수산업 생산·가공현장 찾아 점검회의 열어 -

해양수산부는 정부의 핵심개혁 과제인 '수산업의 미래산업화' 추진 상황 현장점검에 나섰다.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은 3월 9일(수) 굴 주산지인 경남 통영을 찾아 굴 양식, 가공업체 대표와 수산무역협회, 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관계자 등 수출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굴 양식과 수출확대 전략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해양수산부는 수산물 수출확대,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첨단양식 본격화, 어촌관광 활성화, 수산업체와 물류업체 간 상생 업무협약(MOU) 체결 등 수산업을 미래 산업화하기 위한 올해 5개 세부추진과제를 보고했다. 특히, 굴을 중심으로 한 수산물 수출전략

에 대해 현장의 의견을 수렴했다. 지난해 우리나라 굴 생산량은 28만8천톤으로, 굴 껍질을 제외한 알 굴 생산량 3만3천톤 중 28%인 1만3천톤을 수출하여 9천6백만불의 수출액을 기록했다. 이는 2014년 6천6백만불보다 45% 증가한 수치로 일본의 굴 생산부진으로 인해 대일본 수출이 증가('14년, 31 → '15년, 56백만불)한 데 따른 것이다. 지난해 기준 굴 수출액은 일본 5천6백만불, 미국 1천8백만불, 홍콩 8백만불 등이었다.

해수부는 올해는 일본의 굴 생산 회복으로 일본시장 수출에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미국·홍콩·중국 등 대체시장 개척 및 고부가가치 가공품 개발 등을 통해 전년

대비 20% 증가한 1억1천5백만불 수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부는 총 30회에 이르는 수산식품 박람회 참가하고, 굴 통조림에 대한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중국 시장 진출을 위한 홍보 마케팅을 강화할 계획이다. 굴 스낵·굴 스테이크 등 가공제품 개발 등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이러한 수출확대를 생산측면에서 뒷받침하기 위해 굴 양식면허 확대, 일본·미국 등 수입국가에서 요구하는 위생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한 생산해역 위생안전관리 강화, 정화시설 도입 연구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최근 고수온 등 해양환경 변화로 굴 생산량이 다소 감소할 것으로 전

망되고, 대외 수출여건도 어려운 상황에서 해수부는 이러한 대책을 통해 굴을 주요 수출전략 품목으로 성장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앞으로도 참치 양식, 어촌체험마을 등 '수산업의 미래산업화' 정책현장을 장·차관이 직접 방문하여 현장의 문제를 신속히 해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은 "수산업의 미래산업화를 통해 어업인들의 소득은 도시근로자의 80%까지 올리겠다."라며, "앞으로 매월 민간 전문가, 정책수요자 등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현장점검단을 운영하여 국정과제 정책이 현장에서 원활하게 작동되도록 추진성과 점검체계를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해수부, 2016년 중국어선 조업질서 확립 추진

- 무허가 중국어선 몰수·폐선 조치 및 한중 불법어업 공동 단속 시스템 구축 -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은 지난해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제15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에서 합의한 「불법(IUU)어업 방지 공동조치 합의문(이하, 공동조치 합의문)」에 따라 중국어선 불법어업 지도·단속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올해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무허가 조업으로 나포된 중국어선에 대하여 중국 자국 허가 여부를 확인하여 한국과 중국의 어업허가가 모두 없는 양무어선으로 밝혀질 경우 검찰 등 관련기관과 공조하여 몰수·폐선을 원칙으로 강력히 대처한다.

현행 「EEZ어업법」 상 몰수·폐선은 임의규정으로 무허가 불법조업으로 한국 측에 담보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석방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공동조치 합의문에 따라 한국 정부에 담보금을 납부한 후 석방되더라도 양무어선으로 확인될 경우 중국에서 선박을 몰수당하게 되므로 담보금 미납 사례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해어업관리단은 이러한 양무어선의 원활한 몰수·폐선 업무를 위한 검찰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하여 EEZ어업법 개정 이전이라도 기본적으로 몰수·폐선하기로 하였다.

또한, 우리 EEZ해역에서 조업한

어획물을 나르기 위해 중국 어획물운반선이 우리 EEZ를 입출역하는 경우 지정된 장소(체크포인트)를 통과하는지에 대한 여부를 집중 감시하고 어획물 축소기재 등의 불법행위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중 잠정조치수역에서 양국 어선의 위반조업 방지 및 자원관리를 위한 한·중 지도선 공동순시 3회, 자국 어선 조업실태 확인 및 상대국 지도 단속 업무 정보교환을 위해 교차순시 2회, 성어기간 우범해역을 선정하여 수시로 특별단속을 실시하는 등 외교적인 노력과 더불어 유관기관 간 협업을 통해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을 차

단할 예정이다.

지난해 서해어업관리단은 불법조업 중국어선 142척을 나포하고 담보금을 101억원 부과(60억원 징수)했으며, 담보금 미납자 등 23명을 구속 조치하고 불법어획물 61톤(위판대금 5천4백만원)을 압수하였다.

정동기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장은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중국어선의 조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불법조업어선의 이력을 데이터베이스화 하는 등 연내에 「IUU어업공동 단속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라고 밝혔다.

성장속도 2배 빠른 김 신품종 '수과원 108호' 개발

- 기존 품종에 비해 부드러운 식감, 높은 생산성으로 어업인 호평 기대 -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는 기존 국산품종보다 성장속도가 2배가량 빠른 방사무늬김 신품종 '수과원 108호'를 개발하여 품종보호권을 출원했다고 밝혔다.

이 품종은 국립수산물과학원 해조류바이오연구센터에서 개발한 방사무늬김 계통으로 우수한 개체군을 선발하여 품종개량(선발육종)을 한 것으로 잎 부분(엽체) 두께가 얇고 부드러워 식감도 우수하다. 또한, 엽체가 타 품종에 비해 넓기 단위면

적당 생산량이 향상될 수 있어 김 양식 어업인들이 선호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우수성은 2년간의 현장검증을 거쳐 확인했으며, 김 양식 주산지인 신안, 진도, 서천에서 추가적인 현장적용 심사를 거친 후 어업인들에게 보급될 예정이다.

* 식물신품종보호동맹(UPOV)에 따라 '12년부터 식물신품종보호제도가 시행되었으며, 특허권과 같은 형태로 '출원 → 심사(현장적용 약 2

년) → 등록되는 절차를 거침

김 신품종 개발은 국립수산물과학원 해조류연구센터에서 2009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됐으며, 현재까지 김 신품종 5개를 개발한 바 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 주로 생산하는 김은 방사무늬김, 돌김 등이 있는데 방사무늬김은 국내 김 양식생산량의 약 70%를 차지하며 김밥용과 조미김 가공에 주로 활용되고 있다.

* '15년에 우리나라 김생산량은 128백만속(1속 : 마른김 100장)이

며, 그중 40%인 51백만속(여의도 총면적 71배 해당)은 수출

오광석 양식산업과장은 "김은 지난해에 수출 3억불을 달성한 농수산물 전체 수출 3위의 수출 효자품목이다."라며, "앞으로도 좋은 품종 개발과 함께 김 종사자의 소득 증대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겠다."라고 밝혔다.

* 수출 1위: 담배(887백만불), 2위: 참치(490백만불), 3위: 김(305백만불)

세계 7위 양식대국 100년 발자취, 수산양식 역사서 발간

- 사막에서 키운 새우·김 수출 3억불 달성까지 수산양식 역사 집대성 -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과학원은 우리나라가 세계 7위의 수산양식 생산 중주국이 되기까지 지난 100년 동안의 기술 개발과 발전 등 수산양식의 역사를 집대성한 역사서를 발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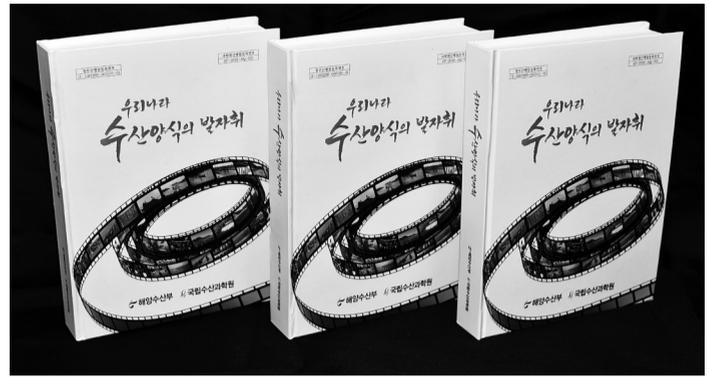
단일품목으로 수출 3억불을 달성한 김 등 주요 양식대상품종 85종의 연도별 기술개발과 보급과정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으며, 역사적 자료와 사진을 포함해 수산양식의 역사를 총망라하였다.

* 감미역 등 해조류 18종, 굴피조개·바지락 등 패류 20종, 넙치·돔류 등 어류 22종, 보리새우·대하·해삼 등 갑각류 및 기타 7종, 연어·뱀장어 등 내수면 양

식 18종

우리나라의 '수산양식' 정의는 1953년 최초로 제정된 「수산업법(1953.09.09. 법률 제295호)」 제8조에서 '일정한 수면에서 구획 기타 시설을 하여 양식하는 어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수산양식의 발달단계는 양식기술 개발과정과 수산정책이 함께 변화하고 있어, 1945년 이전은 양식 대상종의 초기 개발 단계 → 해조류의 확대 개발 및 천해 간석지 개발 이용단계(1946~1975) → 양식 신품종의 개발과 신기술의 보급단계(1976~1990) → 양식 생산성 향상 기술개발 단계



(1991~현재)로 구분할 수 있다.

특히, 주요 품종별 양식기술 개발 연혁에서는 양식 시작시기와 인공채란에 의한 종묘생산 성공까지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과정과 기술보급에 의한 수산양식의 확대와 최근 기술개발 현황 등을 자세히 서술하고 사진으로 정리하여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우리나라 최초의 해조류 양식품종은 '김'으로 1640년(인조 18년)에 양식법이 개발이 보고되고 있으며, 비타민과 무기질이 풍부해 즐겨먹는 '미역'은 1972년부터 약 40년간 주요 양식품종이었고, '조미 김' 개발에 따른 국내 소비는 물론 수출 증가로 2012년부터는 김이 1위를 차지하고, 마른 김 생산에서는 중주국인 일본을 제치고 세계 1위의 생산량을 올렸다.

1431년 태종실록에 섬진강 하구의 굴양식과 여자만의 꼬막 양식이 기록되어 있으며, 1960년대 이후 피조개가

리비 등 다양한 패류품종이 양식되었고, 바다의 산삼·전복은 주요 먹이인 다시마의 양식생산량이 증가하면서 생산량도 증가해, 육종 전복에 대한 연구도 진행됐다.

1964년 방어의 단기간 축양기술로 시작된 어류양식은 1980년 이후 경제 발전에 따른 생활향상으로 고급어종에 대한 급속한 수요 증가로 양식기술 개발의 전환기를 맞아, 오늘날 국민횡감으로 자리 잡은 넙치 양식기술이 본격적으로 개발되기 시작했다.

강준석 국립수산물과학원장은 "사하라 사막에서 친환경적으로 새우를 키워내고, 스낵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김 수출이 3억불을 돌파하기까지 우리나라 수산양식의 기술개발과 발전을 위한 기록들이 본 역사서에 상세히 소개되고 있다."면서 "본 역사서를 통해 수산양식의 과거와 현재를 재조명할 수 있는 기회와 우리 국민들이 수산양식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수산양식의 발달 단계]

양식 발달단계	해조류 양식 발달단계	패류 양식 발달단계	내수면 양식 발달단계	어류 양식 발달단계
양식 대상종의 초기 개발 단계 (1945년 이전)	제 1단계 (김 양식 개발기) 1945년 이전	제 1단계 (패류 양식 태동기) 1921~1945	제 1단계 (내수면 양식 태동기) 1950년 이전	
해조류의 확대 개발 및 천해 간석지 개발 이용 단계 (1946~1975)	제 2단계 (미역·다시마 양식 개발기) 1945~1973	제 2단계 (천해간석지 개발 이용의 단계) 1945~1950	제 2단계 (외래 담수어종의 도입기) 1951~1980	제 1단계 (어류 양식의 태동기) 1964~1980
양식 신품종의 개발과 신기술의 보급 단계 (1976~1990)	제 3단계 (김 유리사상체 및 부류식 양식 개발 보급기) 1974~1983	제 3단계 (양식방법 개선과 생산 초기단계) 1961~1975	제 3단계 (내수면 양식 중흥기) 1981~1990	제 2단계 (어류 양식 주종 개발기) 1981~1990
양식 생산성 향상 기술개발 단계 (1991~현재)	제 4단계 (해조류 양식품종의 확대와 품종 개량기) 1984년~현재	제 4단계 (양식방법의 개량 및 안정적 생산 기술 개발 단계) 1986~2000	제 4단계 (내수면 양식 품종 개량기) 1991~2000	제 3단계 (어류의 다품종 양식 개발기) 1991~현재
		제 5단계 (양식종의 품종개량 및 생산성 향상 기술 개발 단계) 2001~현재	제 5단계 (토종 담수어 보존 및 양식 체계기) 2001~현재	

2016 한국국제낙시박람회 개막, 해수부 낙시 홍보관 운영

- 낙시안전정보 제공, 체험프로그램 등 다채로운 행사 -

'2016 한국국제낙시박람회'가 3월 11일부터 13일까지 고양 킨텍스(KINTEX) 제2전시장에서 열렸다.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는 이번 박람회에서 낙시안 전문화 정착을 위한 대국민 홍보와 낙시산업 정책을 알리기 위한 홍보관도 운영하였다.

올해로 제20회를 맞이하는 한국국제 낙시박람회는 낙시용품, 아웃도어, 낙시 매체 등 낙시관련 업체가 망라해서 참여하는 국내 유일의 박람회다. 이번 박람회는 국내·외 150여개 업체가 참여하고 관람규모도 4만여명으로 역대 최대규모로 개최되었다.

해양수산부는 관람객을 대상으로 낙시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동영상 상영, 구명조끼 착용 등 안전체험, 낙시안전 수칙과 수산자원보호 관련 정책안내 등 다양한 정책홍보를 실시하였다.

홍보관에서는 어린이 동반 가족단위

관람객 등을 대상으로 점토 물고기 만들기 체험, 포토존 설치, 홍보이벤트 참여자에 대한 기념품 증정 등 다채로운 참여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함으로써 낙시 정책에 대한 대국민 관심도를 높였다.

특히, 율학배 해양수산부 차관이 직접 박람회 개막식 현장을 찾아 전시장 관람, 낙시전문매체와 간담회 등 낙시 안전 및 낙시산업 육성과 관련한 정부의 정책에 대하여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자리도 가졌으며,

"이번 박람회는 한국낙시기자재의 우수성을 국내·외에 알리고 해외 수출을 확대하는 낙시산업발전의 중요한 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즐겁고 화려한 낙시의 이면에는 수산자원 남획과 환경오염, 안전불감증과 같은 어두운 문화도 함께 있다면 이를 개선하는 것이야말로 낙시산업 발전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어업 현장에서 수산정책 설명회 개최

- 해수부 실국장급, 2주간 6개 권역에서 현장소통 실시 -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는 3월 8일부터 2주간 전국 6개 권역*에서 어업인, 수협·지자체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수산정책 설명회"를 개최했다.

* 경기·충남(3.8) / 강원(3.9) / 전남(3.10) / 제주(3.15) / 경북·울산(3.17) / 부산·경남(3.17)

금년도 수산정책은 현 정부의 국정 과제이자 핵심 개혁과제인 「수산업의 미래 성장 산업화」를 목표로, ▲수산업 생산 방식 혁신, ▲수출 중심의 식품산업 육성, ▲수산업·어촌의 잠재력 극대화, ▲어업인 소득·복지 안정망 확충 등 4가지 정책 방향을 중심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정책 설명회에는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 등 실·국장급 고위공무원이 직접 현장에서 정책을 설명하고 어업인들과 소통함으로써 현장의 목소리가 바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 정영훈 수산정책실장은 "어가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수산물 수입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수산업을 미래성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현장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며, "이번 설명회를 통해 정부 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어업인들의 어려움을 잘 챙겨서 현장 맞춤형 수산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기간 : '16. 3. 8. ~ '16. 3. 17. (6개 권역/6회)
- 장소 : 지자체 및 수산관련 단체 회의실
- 설명자 : 수산정책실장, 수산정책관, 어업지원정책관, 어촌양식정책관
- 참석대상 : 810명 내외(어업인, 수협, 지자체 등 관계자)
- 주요 내용
 - 2016년 수산정책 추진방향 설명 및 질의응답
 - 현장 건의 및 애로사항 청취

어업 현장 '바다 위의 응급실' 운영... 어업인 의료복지 높인다

- 조업현장에서 응급 시 동해어업관리단 기동 해상의료지원팀 출동 -

어업현장에서 조업 중에 다치거나 몸이 아픈 긴급한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단장 정상윤)은 이 경우 국가어업지도선에 신고하면 접수 즉시 기동 의료지원팀이 탄 국가어업지도선이 현장으로 출동해 적절한 치료와 처치를 해주는 '바다 위의 응급실'을 운영한다.

동해어업관리단의 '기동 해상의료지원팀'은 공중보건사와 의료직 공무원으로 구성되며, 어업현장을 다니며 응급환자에 대한 치료활동을 하고 있다. 이는 의료직 공무원이 상시 근무하는 복지지도선의 해상의료지원과는 별도로 운영된다.

올해도 지난 1월 동해중간수역의 해상의료지원 및 울릉도 사동 어촌계에 벽지 어업인 의료복지 지원을 시작으로, 관할수역 및 낙도·벽지

에 의료복지 지원 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계획이다.

2009년부터 운영 중인 기동 의료지원팀은 그 동안 조업 중 부상이나 처치가 필요한 어업인을 대상으로 총 780여명의 크고 작은 환자를 치료하거나 처치하는 등 조업현장의 의료지원 활동으로 어업인의 든든한 수호천사가 되어오고 있다.

정상윤 동해어업관리단장은 "수산자원보호를 위한 불법어업단속 등 어업질서 확립 활동도 중요하지만 의료 손길이 미치지 않는 연근해 조업 현장에서 어업인들이 안정적으로 조업할 수 있도록 의료복지의 지원도 중요하다."라며, "해상 의료복지 지원과 지리적 여건이 불리한 낙도·벽지 어업인들의 의료복지를 높이기 위해 지원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수부, 3월 어식백세 수산물 '홍어가오리주꾸미' 선정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는 독특한 맛으로 국민들에게 사랑받는 홍어가오리와 피로회복과 시력에 좋은 주꾸미를 3월의 어식백세 수산물로 선정했다.

〈3월의 어식백세 수산물〉



홍어는 수분이 많고 단백질이 풍부하여 갈슘의 좋은 공급원이며, 성장기 어린이의 뼈 성장과 성인의 골다공증 예방에 좋은 효과가 있다. 홍어의 단백질을 구성하는 아미노산의 조성을 보면 글루탐산, 아스파르트산, 라이신, 루신 등의 순으로 많으며, 우리나라 사람들이 부족하기 쉬운 라이신과 트레오닌을 다량 함유하고 있다.

가오리는 주성분이 단백질, 지질, 수분, 탄수화물로 이루어져 있으며, 다른 어류에 비해 지질의 함량이 적은 반면, 단백질의 함량이 높다. 또한, 곡류에 부족하기 쉬운 아미노산인 트레오닌을 다량 함유하고 있어 곡류를 주식으로 하는 한국인의 영양을 보충하는 중요한 식품이다.

주꾸미는 낙지와 꼴뚜기의 중간 크기로 낙지보다 살이 연하고 꼴뚜기보다 쫄깃한 맛을 느낄 수 있다. 예로부터 '봄 주꾸미, 가을 낙지'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봄철에 맛과 영양이 뛰어난 주꾸미는 피로회복과 시력에 좋은 타우린을 다량 함유하고 있다. 또한, 저칼로리 식품으로 여성들의 다이어트에도 좋은 효과가 있다.

한편, 이달의 수산물로 선정된 홍어, 가오리와 주꾸미는 3월 한 달 동안 수산물 전문 쇼핑몰인 인터넷수산물시장(www.fishsale.co.kr)에서 시중가격보다 1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한다.



이와 함께, 해양수산부에서는 3월의 지역 축제행사로 충청남도 보령시 웅천읍 무창포항 일원에서 개최되는 '2016 신비의 바닷길 주꾸미&도다리 축제'를 소개했다. 동 축제는 3월 중순에 열릴 예정이며, 다양한 주꾸미 요리와 특산물 판매, 축하공연 등 다채로운 행사가 준비되어 있다.

박성우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장은 "3월에는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은 주꾸미, 홍어와 가오리가 이달의 수산물로 선정되었으니 국민들께서 많이 찾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했다.

꽃게, 갈치 등 '잡는 어업' 생산자단체 육성

- 해수부-한국어촌어항협회, 연근해 어업인 조직화 및 자조금 지원사업 추진 -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와 한국어촌어항협회(이사장 류청로)는 연근해 어업(잡는어업)의 전국단위 품목별 생산자단체 육성을 위하여 어업인의 조직화 및 자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연근해어업은 양식업, 농축산업과 다르게 생산 지역·품종·방식의 다양성으로 인하여 자생적인 전국단위 품목별 생산자단체가 만들어지는데 어려움이 있었으며, 전국에 산재해 있는 연근해 어업인을 생산 품목별로 한데 모아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와 한국어촌어항협회는 연근해 어업인이 스스로 생산 품목별 대표 단체를 만들 수 있도록 조직화의 전(全)과정을 돕는다. 생산자단체가 자체적으로 조성한 자조금에 대해서 재정 출연도 실시할 계획이다. 자조금이란 특정 품목의 개별 생산·공급자들이 소비촉진, 수급조절, 품질향상 등 사업을 실시하기 위해 일정 금액을 의무 또는 자발적으로 내

조성한 기금을 말한다.

한국어촌어항협회는 조직화를 원하는 전국의 연근해 어업인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설명회와 상시 전화상담 및 전문가 협력을 통해 품목별 생산자단체 결성을 돕고, 이후 단체가 결성되면 마케팅, 수산자원 관리와 컨설팅 서비스 등 사후관리까지 제공하여 단체의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할 계획이다.

조직화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은 어업인은 한국어촌어항협회 어촌개발팀(02-6098-0824)으로 문의하면 상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최완현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은 "그동안 연근해어업은 다른 산업에 비해 생산 품목별 조직화가 미흡하여, 어업인의 교섭력이나 수급조절 역량을 높이기 어려웠다."라고 밝히면서, "연근해어업의 품목별 생산자단체를 본격적으로 육성하여 수산업이 '덜 잡고 더 버는' 구조로 변화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사)한국자율관리어업 연합회 소식란

[1~2월 소식]

(사)한국자율관리어업연합회(이하 연합회)는 지난 1월 22일 임시이사회를 충북 오송 연합회 사무실에서 개최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수산의날' 유공포상자 선정, '15년도 자율관리어업 참여공동체 평가(연합회 평가)' 등을 논의했다.



[3월 소식]

(사)한국자율관리어업연합회(이하 연합회)는 3월 8일 정기이사회를 충북 오송 연합회 사무실에서 개최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15년도 사업예산 결산보고'와 '16년 사업예산안', '16년 대의원 총회 일정안' 등을 논의했다.



아울러, '16년 대의원 총회'를 3월 29일 KTX오송역 오송컨벤션 2층(아이비홀)에서 개최한다. 이번 총회는 자율관리어업 참여공동체 대의원(52명), 이사(14명), 감사(2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총회 주요 안건은 지난 정기이사회에서 논의되었던 사항을 최종 심의한다.